



## 『학회소식』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행정판례연구회와 연구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진수안 대법관)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월 27일 오후 6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행정판례연구회가 편찬한 ‘행정판례평선’의 출간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안철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등에 관한 소송의 방법’, 하명호 고려대 교수가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구제’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용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행정판례평선’(박영사 간)은 행정법을 탐구하는 학자와 실무가 95명의 필진이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 142건을 평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송화 간행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3년에 걸쳐 준비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월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 지방분권, 동네 자치, 지역사회 정책’이란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란 특별 세션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했다.

이 세미나에서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에 대해,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분권 헌법 개정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 세미나의 발제이후 토론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헌법개정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는 낙선시키는 등 적극적인 운동의 필요성도 촉구됐다.

## 『동 정』

### 손기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법연수원 4기)을 신임 회장으로 지난달 1월 28일 추대되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부회장에는 이강원(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전임 회장인 김종구 전 법무장관은 고문직을 맡게 되었다.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하태훈(54)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 회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한국입법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제14회 정기총회에서 배병호(54·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2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최 교수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1957년 상사법연구회로 출범한 한국상사법학회(1971년 개명)는 교수, 법조인 등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상법 관련 학회다. 기관지인 '상사법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